

전북대 김정기 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김정기 교수(치과대학 치 의학과)가 대한치과교정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임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며, 같은 기간 (사)바른이동사회 회장직을 겸하게 된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1959년 5월 28일 치의학계 최초로 창립, 현재 3,300여 명의 회원과 학회 산하 6개 지부가 함께 활동 중이다. 국내 치과계 최초로 학회지가 SCI에 등재됐고 연구재단 등재 임상자료도 발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향후 2년간의 회장 임기 중 주요사업으로 △대한치과교정학회지의 위상강화, △개원의 회원들의 개인환경 개선, △학회 홍보 강화를 통한 회원권익 향상, △전문가 대표집단으로서의 윤리성 강화, △사법적인 바른이동사회의 회원가입 증대 등을 꼽았다.

김정기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교정학회 신입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교정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바른이동사회는 2003년도 대한치과교정학회 산하단체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은 바른이동사회의 대표 사업으로, 2003년 23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57명의 청소년에게 밝은 미소를 되찾아 줬다.

/장은성기자

세방, 사회공헌 활발히 펼친다

세방이의순재단-완주군 업무협약... 복지시설 지원·저소득층 서비스 제공 약속

완주군 테크노2산단에 입주하는 글로벌종합물류기업 세방(주)이 완주군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군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최종일 세방(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방이의 순재단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세방이의순재단은 세방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으로 복지시설, 저소득, 긴급구호 사업 등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과 세방이의순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뜻을 모으고, 완주군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성되는 복지 기금을 통해 완주군 관내 지역 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과 노인 장애인에 위한 전통스 쿨터 배터리 교체 및 후원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일 세방(주) 대표이사는 "사회공헌의 완주군은 세방(주)의 호남권 물류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완주군과 함께 지역사회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적극 협력하려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큰 나눔과 협력을 약속해주신 세방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주요 한민과 교통 거점지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방은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2산단에 입주 예정이다. 작년 10월에 4만1,467㎡ 물류부지를 분양 계약하고 총 380여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정부 세종청사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리플릿 및 배너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이번 홍보는 전북도청 및 8개 시·군이 합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탁된 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각 기금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세종 청사 합동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각 지역에 특색있는 답례품을 홍보하고, 효과적인 홍보방식에 대해 지자체간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고향사랑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2024년 사업으로 차매 어르신 인공지는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 홍보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읍, 제1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임실읍이 최근 임실읍 행복누리원 북카페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제1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진행되는 통합사례회의의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진행됐다.

부친은 65세의 노인이며 모친은 뇌출혈로 거동이 어려워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어 청년 가정이 된 대상자가 부모를 간병하며 부양하는 가정으로, 30년 이상 된 아토피의 운수 배관이 오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겨울에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 써야 하는 상태이다.

건축 후 도배장판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배관공사와 함께 도배장판 교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로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임실군청, 임실읍사무소, 임실읍 행복보장협의체 등 관내 복지사업기관이 협력하여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성만 임실읍장은 "복지 사각지에 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남원우체국 등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 협약

남원시는 올해 6월부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월 22일 남원우체국, 우체국 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이만수 남원우체국장 이 참석, 각 기관의 역할을 조율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지역 내 복지지원 연계 강화) 부문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며 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남원시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정, 매월 2회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지원한 물품을 집배원이 대면 배송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및 도움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만수 우체국장은 "집배원들의 노력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사업들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



원우체국과 우체국 공익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 박생희 팀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간 협력사업 외에도 네이 버클로케이션을 KT AI 스피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립 위기가구 발견에는 시청 주민복지과(063-620-6335)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강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사례회의

남원시 대강면 복지기동대는 22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했다.

대상은 독거노인 세대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처지로, 복지기동대는 보일러 및 수도시설 교체지원에 나서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였다.

올해 새롭게 조직된 대강면복지기동대는 세번째 회의 개최를 통해서 두 가구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결정했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소액금융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생활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대강면 맞춤형복지팀 이이영 팀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힘써준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민간협력의 중요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체육회,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선수단에 지원금 전달

전주시체육회는 오는 25~28일 4일간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관내 선수단에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박지연 회장은 "이번 소년체육대회를 통해 선수들은 전주시의 자랑스런 대표로서 좋은 경력을 쌓길 바란다"며 "모든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전주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정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체육회는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전주시



체육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기자

김제시, 시민과 함께 클린 동행 환경정화활동 펼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 지역내 사회단체·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동행'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 정화 활동은 김제 전역을 대상으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 쓰레기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치폐기물, 하천변의 묵은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부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김제 전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정화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 주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중에도 정화 활동에 동참해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덕분에 김제가 한층 깨끗해졌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대학 저탄소농업반 운영

정읍시가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단풍미인대학 과정 중 저탄소농업반을 운영하며 정에 유기농업을 양성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 농업 재배 방식과 가축 사육방식을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인제 양성이 필수이다.

이에 단풍미인대학 저탄소농업반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실용화 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탄소농업반에서는 이론교육과 유기농자재 제조·활용 실습교육 등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제조하는 실습 교육, 22일에는 직접 제조한 유기농자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절감효과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주천면 지사협, 보행보조기 전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실기요!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본 사업은 1일 1가구 소동행정에서 발굴 보행 어려움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 이웃이나 경로당 등에 마실을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주천면 특화사업인 '행복 두배 계좌 갖기'를 통한 정기기부와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일시 기부금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한 어르신은 "걸는 게 불편해 마을 경로당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보행 중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아 너무 기쁘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편 협의체 김영근 위원장은 "거동 불편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다니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밀반찬 나눔 사업 진행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은주, 정수호)는 올해에도 지역사회 맞춤형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행복 나눔 1인 1계좌 갖기, 영양 풍부한 밀반찬 나눔, 명절 이웃돕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밀반찬 나눔 사업은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가 높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읍 4개 여성단체(새마을부녀회, 여성 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와 지리산노인복지센터가 매월 2회 순번제로 참여해 손수 만들어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월 21, 나눔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월 운봉읍 경효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청소, 어르신 돌봄, 놀이활동 등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봉사의 시간도 가졌다.

한 어르신은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는데,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선물로 받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라며 감사 미소를 지었다.

한편 공동위원장인 이은주 읍장은 "민간과 공공이 하나되어 나눔·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